

웃음과 감동! 2004 무지개 축제

4부까지 1800여명이 함께 해 하나된 공동체의 기쁨을 나눠



전교인 운동회의 응원하는 모습

5월16일 지난주일에 있는 2004 무지개 축제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참으로 성황리에 아름답고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축제는 전체 4부로서, 1부 연합 예배, 2부 한 가족의 장, 3부 한 몸의 장, 4부 한 마음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연합예배후 먹거리, 축제, 놀이마당에 2,500여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여 함께 먹고 즐겼으며, 약 1,800여명의 성도들이 대예배실에서 열린 4부 한마음의 장까지 참여하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며 한 지체임을 진하게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다. 날씨부터 시작하여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 그리고 뒷정리에 이르기까지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참여와 헌신, 노력과 기도의 모든 귀한 수고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은 2004 무지개 축제의 생생한 모습은 2,3면의 무지개축제화보를 통해 볼 수 있다.

**장애인부, 안양교도소 농아인 방문
농아, 더불어 하나님
나라 가야할 이웃**

장애인부장 김창안 집사는 5월 19일 수요일 10시 안양교도소의 농아인 입소자와 함께 예배하고 친교하기 위해서 첫 방문을 하였다. 이 사역지는 16년간 이곳에서 수화통역 및 농아인 사역을 하고 계신 최영숙D집사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박화석·문혜순집사 부부, 윤덕영 목사, 그리고 농아인 어머니로 구성된 청모회(청각장애우 자녀를 둔 어머니 모임) 등이 참석했다. 2미터는 족히 넘는 담장이 보이는 울타리 안으로 신원조회를 하고 들어갔다. 안양교도소는 남자 입소자들만 있다. 그 중 농아인 입소자는 20명 정도가 된다. 법무부 직원이 2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교육장으로 인도한다. 석가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해 화려한 색깔의 연등과 큰 물고기 형상이 천장에 달려있어서, 이곳이 종교교육을 하는 곳임을 알 수 있었다. 9명의 입소자가 참석한 중에 3명은 농아인은 아니지만 농아인들을 돕는 역할을 해주는 동료입소자였다. 5미터 정도의 직각 탁자의 한쪽에 파란색 좌수복을 입은 분들이 저마다 건장하고 길들여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4면에 계속)

북한 결핵요양소 김영노 소장

“2년간 계속 지원해준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벨재단 통한 2003년 북한선교 결산보고



주님의교회는 2003년 상반기에 유진벨(EugeneBell)재단을 통하여 북한 평안남도 남포시 대안구역 제3결핵 요양소에 12,500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농업지원물품을 지원하였다. 유진벨재단은 지난 해 4월 19일~5월 13일에 북한을 방문하여 사역한 내용이 담긴 비디오 1개와 사진 7장과 보고서를 보내오면서, 주님의교회 교인들의 북한 선교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상세히 알려 주었다. 남포시 제3요양원 김영노 소장은 전달받은 물품의 내용과 사용처 그리고 감사의 인사말을 보내왔다. 요양소 관계자들은 한번으로 끝날 것 같았던 지원이 2년째(2002년과 2003년) 계속되고 있는 것에 내심 놀라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 주님의교회는 총 12,500달러를 지원했으며 그 내용은 결핵약 키트 100명분, X-레이 필름 및 현상, 고정액 세트, 현미경 시약 세트, 경운기 수리 후속 물품, 온실용 비닐, 채소종자, 콩, 복합비료, 살균 살충제, 분무기등을 보냈다. 자칫 결핵과는 별로 상관이 없을 듯 생각되는 농업지원물품이지만 요양소 환자들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활동을 요양소 내에서 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영양공급을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요양소 관계자들은 “어느 자선단체보다도 북한 요양소 실정을 잘 이해하고 결핵약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농업 물품까지 세세하게 공급해 주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해왔다.

5월정기당회

7월4일 장로,안수집사,권사 선거하기로

5월 정기당회가 5월8일 오전6시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결정된 주요안건은 다음과 같다. 7월4일을 임직자선거일로 정하고 장로 5명, 안수집사,권사 각각 10명으로 피택인원을 정하였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문창복장로로, 선거관리위원으로 권오승,전세표,황기언,이병식,윤좌원,김소일장로가 맡기로 하고 선거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위임하였다. 창립기념주일인 6월27일 3부예배시간에 임직식을 하기로 하여 작년에 피택된 장로 10명, 안수집사 14명, 권사 12명이 임직하게 된다. 이에 앞서 6월20일 주일 오후1시30분에 피택자와 권사, 안수집사회장,당회원이 함께하는 임직자 예비모임을 갖는다. 지난 4월29일 북한용천 열차폭발사고에 긴급지원한 1만불(₩ 20톤)을 비롯 소요예산 총 1551만원을 추인하였다.

교회학교

미국 연수팀 귀국

17일 오후 7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 교회학교 미국 연수팀이 귀국했다. 교회학교 교사와 당회원으로 구성된 10명의 연수팀은 5월 7일부터 열흘간 미국 시카고의 윌로크릭교회와 AWANA 본부, 세인트루이스의 WCA 컨퍼런스 참석 등의 다양한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 참석자 모두는 교회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은 물론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 자세한 보고는 함즐함울 다음 호와 수요예배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11명의 유아세례,

물로 세례받고

꽃다발로 축하세례받고

지난 5월 12일(수) 수요성경공부시간에 11명의 어린이들이 유아세례를 받았다. 김민서, 김은결, 박정민, 박정은, 이서영, 이소리, 이상원, 임보엽, 조병준, 지수현, 홍지연 어린이가 그 주인공들이다. 문동학 목사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통하여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으로 권면하였다. 감동적인 간증의 시간이 있는 후에 장로, 교역자들이 어린이의 몸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드렸다. 영아부와 구역에서 준비한 꽃다발로 축하하였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란 찬송을 부모와 회중이 함께 부르며 은혜를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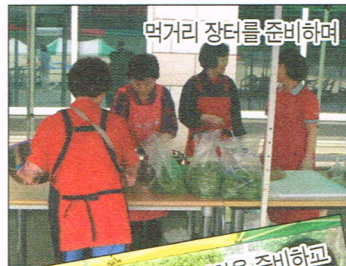
1부 주일예배

어르신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 아름다운 연합예배

행사도우미, 연합예배시간에 축제준비에 분주해

■ 무지개축제 당일 예배는 7시 30분 1부와 10시 연합예배로 드렸다. 담임목사는 누가복음 15장 3-7절을 본문으로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연합예배는 9시 40분부터 할렐루야 찬양팀과 청년부찬양팀의 인도로 찬양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날은 고등부와 중등부도 중예배실과 소예배실에서 장년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감사와 존경의 뜻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온 주님의가족이 함께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었다.

1부 예배는 행사도우미, 청년스텝, 먹거리마당 관계자가 먼저 드린 뒤 서둘러 나가 무지개축제를 위한 기구를 나르며 준비를 서둘렀다. 또 청년스텝들은 청년부실에서 놀이마당과 축제마당에서 잘한 아이에게 줄 사탕선물을 담느라 공장직원처럼 수고했다. 2부 연합예배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와 함께 대예배를 드렸다. 3000여 교우들이 연합예배를 드렸으며 비가 올듯한 아침과 근심을 끼친 일기예보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예배를 드리고 나니 따뜻해지고 햇빛이 하나 하나씩 나타나서 가장 좋은 날씨를 주심에 여기저기에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먹거리 장터를 준비하며



무지개 무지개(준비물을 옮기며)



명찰을 준비하고



우리도 예배드려요 (자모 예배실)



축제당일 교회 전경

2부 한가족의 장

사람사는 냄새가 물씬 풍긴 먹거리장터, 놀이와 축제마당, 이것 저것 해볼 것 너무 많아

장터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한가족을 경험

■ 7개 코너 먹거리 마당에서는 떡볶이, 어묵, 순대, 도토리묵, 장터국밥이 금세 동이 나서 먹고 싶은 성도들을 아쉽게 만들만큼 북적북적했고 마련된 테이블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성도들로 자리가 찼다. 작년과 다르게 먹거리장터 앞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테이블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어 모든 분들의 만족도를 높여 주었다. 구역에서는 구역별로 준비한 음식을 교구별 자리에서 펼쳐놓고 나누어 먹는 모습이 너무도 정겨워 보였다. 세 곳에 설치된 식권판매소는 길게 늘어선 줄로 즐거운 비명을 부르며 식권을 팔았다. 교구별 먹거리 마당은 저마다 늘어선 손님 앞에서 신나게 음식을 만들어 내었고, 한동행과 샌드위치를 팔았던 2교구 김동근집사, 떡볶이를 팔았던 4교구 최장규집사, 왕송근집사는 숨겨둔 장사실력을 발휘하여 손님들을 끌어와 한껏 뜨거운 열기를 더하게 해주었다. 이번 먹거리는 지난 해의 경험을 축적하여서 교구별로 재치있게, 도토리 키재기, 무지개국밥집, 만나와 메추라기, 전순이와 빵돌이 등 식당이름도 짓고, 장소도 넓혀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축제마당을 이루었다. 먹거리 마당을 위해서 교구원사, 집사들의 헌신이 이번 무지개축제가 감동적이고 하나되는 장이 되는데 숨은 밀바탕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먹거리 장터를 준비한 조원호 집사는 교구별 먹거리팀을 도와서 지원하였으며, 농어촌봉사부와 연계하여 제주도에서 옥돔, 갈치, 고등어 등을 도매가격에 팔았으며, 두레마을과 한국기독교생명운동본부와 연계하여 농어촌교회 유기농산물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농어촌부 부원들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 운동장 돌계단을 따라 14코스의 놀이마당이 준비되었는데 모두 청년스텝들이 성도들을 위해 섬겨주었다. 월드컵 2006, 나도 박찬호, 단체줄넘기, 저 유연해요, 행운을 던져라, 주님과 공굴리기, 천생연분, 양파링, 공굴리기, 바벨탑쌓기, 뽑기, 무지개유격대, 불발탄, 제기차기 등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재잘거리는 소리들로 가득했다. 운동장 가운데 차려진 축제마당도 기린, 축구돌, 보트, 기차, 돌고래, 악어, 장애물1,2,3,4, 바이킹 바운스등이 마련되었는데 보기만 해도 신기하고 재밌는 모습에 아이들은 이것저것 하나씩 다 해보고 싶은 마음에 여념이 없었다. 1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의 손에 여러봉지의 사탕선물이 들려있어 놀이하는데도 꼭 붙들고 있는 모습이였다. 스텝들은 놀이마당은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참여 할 수 있음에도 아이들만 보내고 어른들은 당연히 참여를 안해 아쉬웠다고 한다.



어린이들의 천국(축제마당 바운스)



어떻게하지?(풍선아트)



금강산도식후경(먹거리마당)



너누누니? (무지개사전판)



예쁘게 그려요 (페이스페인팅)

캐릭터와 함께 찰칵

이웃귀여워

3부 한몸의 장

성화봉송, 올림픽같은 운동회 열려

성화봉송은 폭죽도 터뜨렸다.

■ 최창섭 장로님의 진지한 사회로 '88올림픽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 라고 이구동성이다. 에어로빅팀이 운동장 가운데로 나와 전교인이 활발하게 동작을 따라하며 전교인 에어로빅 시간을 가졌다. 전교인 운동회는 청년스텝들이 게임을 보조해주었고 가수 겸 MC 박상규 집사가 사회를 보아 전교인들이 더욱 즐거워했다. 한마음팀과 한가족팀으로 나뉘어 운동회를 열었다. 공굴리기, 줄다리기, 박터뜨리기 등의 게임과 응원전도 대단해 팀별 아이들이 흰색, 적색 깃발을 운동회가 끝날때까지 휘날렸으며 열렬한 응원전도 대단해 복을 뚝 치고 함께 합성을 지르며 힘을 북돋워 함께 웃고 함께 응원했다.



굴러라굴러(큰공굴리기)

터져라 터져 (박 터뜨리기)



성경 들고 뛰어오 (릴레이)



멋지죠? (성화 봉송)



함께 출가요(에어로빅)



한마음팀 이겨라(응원전)



한가족팀 이겨라(응원전)



힘내라 힘내라(줄다리기)

4부 한마음의 장

웃음과 감동의 시간

수준높은 문화공연의 장 열려



■ 3부까지 운동장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여러 성도들이 한마음의 장을 위해 대예배실에서 마지막 리허설과 기계설치로 전력투구하고 있었다. 모두들 운동장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보따리를 챙기고 예배당으로 함께 들어갔다. 아나운서 이운철집사와 미스코리아 출신 한나나양이 등장해 성도들은 화려한 캐스팅에 놀랐다. 집사의 멋진 목소리로 카리스마 넘치는 유머와 위트를 발휘해 모든 성도들에 얼굴에는 웃음이 가시지 않았다. 힘있고 화려한 청년위협, 클래식한 중창, 청년부 유상렬 전도사의 감미로운 찬양의 시간은 축제의 흥을 돋구었다. 이어 유아,유치부의 울동찬양이 있었다. 유아,유치부의 울동찬양은 약 10명 정도의 4,5세 유아부 아이들과 14명의 6,7세 유치부 다솜 찬양대 아이들로 이루어졌다. '썩트네'는 사랑이 썩트는 모습처럼 커져간다는 것을 아이들의 동작을 통해 표현했고, 두 번째 곡인 '걸작품'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내용을 각자 아이들의 생각대로 개성 있게 나타냈다. 초등부의 울동찬양은 유아,유치부와는 다르게 역시 나이를 더 먹은 보람이 있어 원숙(?)한 맛을 보여주었다. 영감있는 앙코르찬양에 다소 진지해지나 싶던 분위기는 이내 드라마팀의 코메디 프로 패러디 갈릴리학당으로 인해 폭소로 변했다. 박호길 장로부부의 부러움을 일으킬 정도로 멋진 재즈댄스를 보면서 '나도 춤추고 싶어'를 자신도 모르게 말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번 한마음의 장에서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순서는 교역자들의 'surprise'였다. 찬송을 아카펠라로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여 역시 라고 생각하는 순간, 뒤로 돌아서서 썸그라스를 끼고 현란한 곡에 맞추어 힙합 춤을 추기 시작했다. 교우들의 박수와 환호가 이어져서 다시 한번 더 춤을 추는동안 교역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들은 서로가 어느새 하나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해 태풍피해를 입었던 마산시 진동면의 '희망의 집'을 8개월만에 다시 찾아 인터뷰한 영상이 상영되었다. 지난해 수고해준 이들의 고마움을 표현하며 "많이 욕했다" (많이 수고했다는 의미의 사투리)는 말을 들으며 우리의 작은 봉사의 몸짓이 남기고 있는 열매를 보며 잔잔한 감동과 함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은 윤은성 목사의 인도로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성도들이 하나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다양한 빛깔이 어울려 하나되는 무지개축제는 마무리되었다.



썩이 정말 예쁘네 (유아유치 울동)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의시간)



세상에 이럴수가! (surprise교역자 힙합)



장로님 맞아요? (설위편식)



마구 무너지네요 (갈릴리 학당)

1. 구역장 성경공부 휴강

이번주 수요일 예배는 원래대로 드리고, 구역장 성경공부는 쉽니다. 그러나 구역 모임은 평소대로 합니다.

2. 세례예식 안내

세례/입교 예식이 6월 2일(수) 수요일 성경공부 시간에 있습니다. 문답식은 5월 30일(주) 오후 1시 30분 3집회실에서 있습니다. 청소년 세례/입교식은 6월 20일(주), 교육은 오늘부터 11시에 4층 교회학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3. 자원봉사자 모집

주일 새벽에 식당봉사할 남자성도와(문의 강은애 권사 016-281-4390), 꿈나무공부방 피아노 교사 자원봉사자 4명(문의 한정웅 집사 010-8001-1144) 모집합니다. 함줄함울편집부에서 교회신문 함줄함울의 취재기자, 혹은 편집기자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또한 영상미디어부에서는 교회행사 영상촬영, 영상편집, 예배실황중계및 녹화 등의 영상미디어 자원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이창현 목사 011-466-4736)

4. 교회내 모임 안내

- 1남선교회 월례회가 5월 30일(주) 오후 1시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1945년 이전출생자이며, 이번 모임은 부부상견례가 있습니다. (문의: 회장 신정웅 집사 011-236-0661)
- 중등부 학부모 간담회가 오늘 오전 10시 40분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 임직자 예비모임이 6월20일 주일 오후 1시30분에 있으니, 피택자와 권사, 안수집사회장,당회원이 참석합니다.

사진찾아가세요

오늘 (23일 주일) 1층 로비에 전시



무지개축제의 축제마당 행사로 기획된 무지개사진관은 남녀노소를 불문한 교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분장한 후 서로 쳐다보며 박장대소하는 모습은 마음속의 찌꺼기는 물론이요, 그나마 조금 있던 하늘의 구름도 모두 날려 보내는 듯 했고 새로운 경험이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하는 분도 계셨다. 부부, 가족, 친구 등이 함께 찍으며 각 팀의 사랑을 과시했는데 분장을 도와준 '썩트네' 통합유아부 교사들의 단합된 힘을 자랑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오늘 (23일) 1층 로비에 전시되니 본인의 사진을 확인하여 떼어가면 된다.

(1면에 이어서)

장애인부, 안양교도소 농아인 방문

농아, 더불어 하나님 나라 가야할 이웃

나이는 2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까지 골고루 있는 듯 했다. 또 다른 한 쪽에는 10명 정도의 봉사자들이 앉았는데, 남자 아니면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집사님, 권사님들이시다. 찬송가 405장 <나같은 죄인 살리신>, 300장 <예수께로 가면>을 예배찬송으로 불렀는데, 참으로 그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적합한 찬송이었다. 윤덕영 목사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햇빛을 향해 창문을 열듯,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예배 중 기도와 설교는 모두 최영숙집사님이 통역 수화하셨다. 예배 후, 농아 입소자

들이 준비한 특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야곱의 축복>를 수화로 불렀고, 이어서 방문한 자원봉사자의 특송 <사랑의 종소리>로 화답하였다. 선물증정과 함께 다과를 나누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었다. 18년째 무기수로 살고 있는 한 형제의 이야기, 저마다 자신이 별이 몇 개인지 어떤 일로 들어왔는지를 말하면서 숨길 것도 없이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다. 매주 수요일은 재소자들에게 섬을 누릴 수 있기에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할 말을 하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감사하다."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다음에는 수화를 배워서 함께 말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말씀을 하셨다. 김창안 집사는 "매월 이곳을 방문하겠다고 선뜻 대답할 수는 없지만, 분기별로라도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 사역

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이런 사역의 현장은 봉사지라기 보다는 우리가 더 붙어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할 이웃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해주는 곳이었다.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1. 정기 예배 (주일)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2. 정기 예배 (주중)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 8시 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30분 ~ 9시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3.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썩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

4.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대금(500원)은 구제에 쓰입니다. 잊지 마세요.

5.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7. 친교실(1층) 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주일 및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